

김정일 사망

고난의 행군-선군통치-강성대국... '37년 철권통치'

김정일 생애

17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권을 세운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이후 수십 년간 봉건시대를 능가하는 절대 군주로 군림했다.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것은 1998년 그가 국방위원장에 재주대편 이후 부터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한 것은 그가 1974년 후계자로 공식 내정된 이후 부터다.

이때 부터 아버지를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고 자신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으며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후계자임을 내외에 선포한 후부터 사망하기까지 37년간 북한을 통치해왔다.

◇'불우했던 최고통치자의 아들' =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량강도 백두산의 항일빨치산 밀영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출생연도와 출생지는 북한의 공식발표와 다르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정일의 실제 출생연도는 1941년.

김정일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은 불행했다.

그는 김일성이 평양으로 이주한 지 2개월여 지난 1945년 11월 생모와 그의 항일빨치산 동료와 함께 소련 합정을 타고 함경북도 용천을 통해

권력투쟁 승리 정권 장악... 핵·미사일 전술로 국제고립 자초

조국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고 통치자의 장남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행복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그러나 남동생 슈리가 익사한 데 이어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이듬해 6·25전쟁으로 중국으로 피난살이를 가야만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계모 김정애의 손에서 성장한 유년 시절은 '모성 결핍'을 낳았고 계모와 이복형제에 대한 반감에 이어 후계자를 둘러싸고 계모 및 이복형제와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이는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었다.

◇가족과 권력투쟁 불사하고 권력 장악 = 김 위원장은 1967년부터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을 지내면서 김일성의 장남이라는 유리한 신분을 이용해 김일성의 정책에 불만을 느끼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활동을 적발해 김일성에게 보고하고 숙청하는데 앞장섰다.

이를 통해 김일성의 신뢰를 확보한 김정일은 김정숙의 항일빨치산 동료인 원로간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권력 2인자인 삼촌 김영주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 정치적 힘을 과시하던 계모인 김정애, 김일성의 남다른 사랑을 받던 이복동생 김경일을 물리치고

나서 1973년 후계자 자리인 당 조직 및 선전비서에 올랐다. 이어 이듬해 2월 제5기 8차 당 전원회의에서 김 주석의 공식 후계자로 내정됐다.

김 위원장은 후계자로 공식 내정된 뒤를 전후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수준을 극대화하는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이것이 자신에 대한 우상화로 이어지도록 해 권력을 장악해 갔다.

김일성 우상화와 후계체제 강화, 남북간 체제 경쟁 등을 의식해 그가 주도한 경제운용 시스템은 경제논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치논리만을 내세운 것으로 오늘날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을 본격적인 하강곡면으로 몰아넣은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됐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을 통해 국가권력 전반을 사실상 장악했으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통해 정칙국 위원, 정칙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선출되면서 후계자임을 대외에 공식 알렸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 1992년 공화국 원수에 추대된 데 이어 1993년 김일성으로부터 국방위원장직을 공식 승계함으로써 권력 승계에 따른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고난의 통치' 시대-미원의 변화 =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열렸지만 북한의 모든 상황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한 이 시기에 국가경제와 식량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해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통제기능은 마비되는 등 사실상 상 무정부 상태와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미 1980년 공식 후계자로 낙점돼 권력자로 자리 잡은 김정일 위원장이었지만 이 같은 대내외적 상황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선뜻 오르기 어렵게 만들었다.

김일성 3주기를 마친 뒤 1997년 9월 추대 형식으로 당 총비서에 올랐으며 이듬해 10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국방위원회의 수장으로 재주대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가 됐다.

이를 통해 김정일 시대가 공식 출범했다. 김정일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김 부통령은 '선군정치'로 명명됐고 김정일 시대의 강력한 통치구호로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제, 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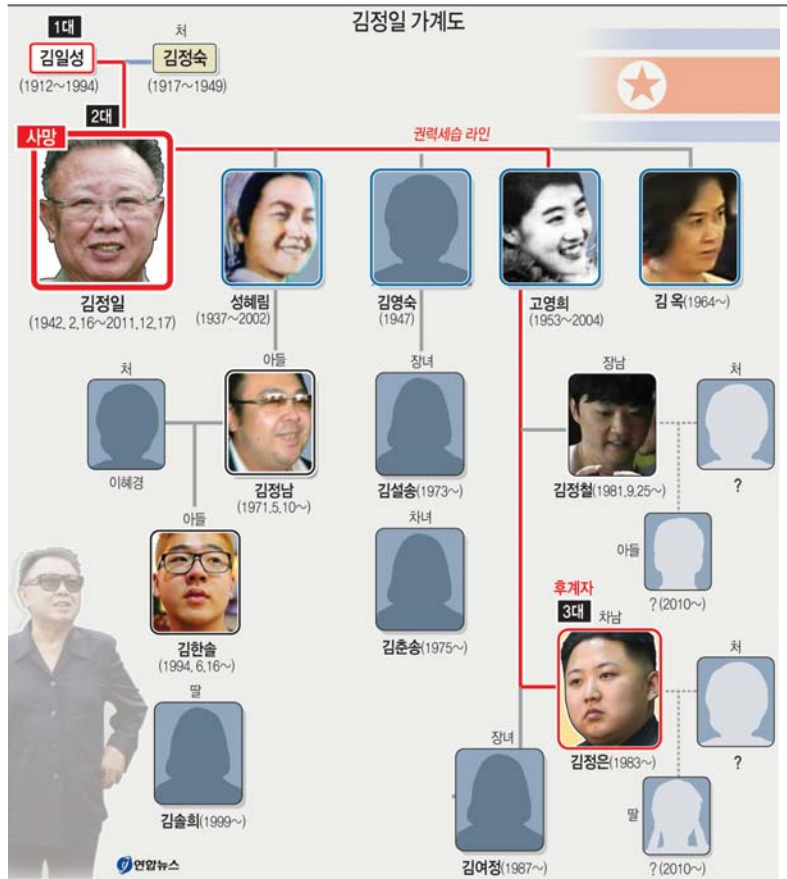


지난 11월 조선인민군 제789 군부대를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대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화를 추구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외교적 행보는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격적이었었다. 1994년 미국과 담판을 통해 북미 기본합의를 이끌어낸 그는 남쪽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금강산 관광사업 등 과격적인 남북교류를 추진했으며 2000년에는 반세기만의 정상회담

을 하고 6·15공동선언에 직접 서명하기도 했다.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 위력을 과시했지만 국제적으로는 고립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는 국정운영에 초조감을 그대로 노출했다. 내부적으로

2009년 1월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2010년 9월에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임하면서 후계체제 구축에 속도를 냈으며 경제적으로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하며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7살때 모친 사망 폐쇄적 성격... 여동생 김경희에 의존

김정일 가계와 가족 면면

지난 17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부모인 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어머니 김정숙이다.

항일빨치산 출신인 김 주석과 김정숙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1912년생인 김 주석은 1930년대 중국 만주와 옛 소련의 연해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였고, 1945년 광복 후 50년 가까이 북한의 지도자로 이름을 남겼다.

김 주석의 이런 배경은 아들 김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국가정책에 관

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밑거름이 됐다.

김 위원장은 김 주석 사후 그를 신격화에 가까운 수준까지 우상화해 내부체제를 결속하고 통치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했다.

김정일의 모친인 김정숙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김일성보다 7년 연하로 알려져 있다. 김정숙은 16세이던 1935년 만주에서 빨치산 부대에 들어가 밥 짓는 일을 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7살때 어머니의 사망은 김 위원장을 조속하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의 생전 가족 가운데 그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

은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 부장이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당 국제부 과장 및 부부장, 경공업부 부부장 등으로 일제강점기 정치활동에 나섰고,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경공업 부장에 선출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김 부장에 대한 의존도는 훨씬 커지면서 현지도에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김 부장의 남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북한에서 실제 중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북한을 대리통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은 김경희와 더불어 김정일의 후견인으로서 후계체제 이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뇌졸중 후유증에도 왕성한 행보

외병에서 사망까지

지난 17일 오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포착된 것은 2008년 9월 초다.

그해 8월 중순 군부대 시찰을 마지막으로 공개활동을 하지 않던 김 위원장은 9월 9일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외병설이 증폭됐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을 부인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은둔 80일 만인 11월 2일 김 위원장이 북한군 '만경봉' 팀과 '제비' 팀간 축구경기를 관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은 왼팔과 왼손이 부자연스러운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연합뉴스

축구 경기 관전 보도 이후 김 위원장은 군부대 시찰, 각종 공연 관람, 각지의 공장·기업소 현지 지도, 해외인사 접견 등 외병설이 제기되기 이전에 보였던 왕성한 행보를 보였고 11월 8일, 12월 13일의 공개활동을 소화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2009년 1월 초 김 위원장은 삼남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다는 교시를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하달했다.

올해 김 위원장은 지난 5월에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석달여 만인 8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7일 오전 열차 내에서 과로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경매특자
◆ 경매 배우실 분
◆ 20년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공동으로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주|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 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병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뜻밖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갯돈 등
임차권 채권 |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 급여(정규, 일용)
가사 |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 보증인 구상, 신용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 저차권, 부당이익,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SM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체준) 010-5311-0086

발목펌프 운동
신개발 편백나무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 운동봉이란?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목 디스크 예방과 치료 등)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아주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경침운동기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일건강이 개발한 특허제품 뿐입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운동기구★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아파트용) 75,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운동봉(아파트용) 55,000원
▶ 경침 겸용 운동봉(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6-1
동협: 601154-52-33534 서영선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복세습 · 개인회생자생환의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1년 6%정도 (천만원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감미담)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전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전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전순위 - 연 5%~7.5% (은행금리) / 후순위 - 연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 한도: KBI세-80%+a (60%) | 전세권 담보대출 |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3.93%~ |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